

Japan Weekly Digest

2012. 12. 08 ~ 2012. 12. 14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정부주도로 반도체산업 재생 추진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일본의 TPP교섭에 따른 FTA촉진 효과
- 산학연 태양전지 연구조직 발족, 제조비용의 절감을 목표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정부 주도로 반도체산업 재생 추진

□ 산업혁신기구가 주식 2/3 보유, 경영주도

- 르네사스엘렉트로닉스가 10일 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의 주요 거래처 8개사로부터 2,000억엔 규모의 출자를 받아들이기로 발표
 - 산업혁신기구가 주식 2/3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재건을 주도
- 르네사스는 내년 2월부터 9월에 걸쳐 산업혁신기구와 도요타자동차, 닛산자동차, 캐논, 파나소닉 등 8개사를 대상으로 제3자 할당증자를 실시, 1,500억엔을 조달
 - 마이콘의 대형고객사인 8개사의 출자비율은 합계 5.82%
 - 르네사스 주식의 90%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NEC, 미쓰비시전기, 히타치제작소 등 3개사의 지분은 22.8%로 축소
 - 산업혁신기구는 필요에 따라 500억엔을 추가로 출자 또는 융자할 계획
- 르네사스는 디지털가전의 핵심인 시스템LSI사업의 부진으로 2013년 3월 결산 기까지 8기 연속 최종적자를 낼 전망
 - 그러나, 자동차엔진, 가전제품의 모터 등을 제어하고 에너지절약 성능을 좌우하는 마이콘 분야에서는 30%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보

□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가적 지원이 불가피

- 산업혁신기구는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
- 르네사스 매수를 먼저 제안한 것은 미국 투자펀드 KKR이었으나, 산업혁신기구와 도요타자동차 등 기업연합이 쟁탈
 - 최고 2,000억엔이라는 일본 측의 출자액이 KKR이 제안한 매수액의 2배에 달하는데다, 외국자본에 의한 매수로 마이콘의 안정적 조달에 지장이 초래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일본 자동차메이커들이 경제산업성에 지원공작을 벌였던 결과라고 일본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음
- 뛰어난 제품개발력을 자고 있으면서 계속 적자를 내왔던 르네사스가 과연 정

□ 고비용구조의 시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최대 현안

- 르네사스의 고객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마이콘의 회로를 다시 개발하는 특주품에 강점을 유지해왔으나, 이는 고비용구조를 초래
 - 채산성을 도외시한 고객의 요구에도 이익이 나는 여타 반도체제품으로 커버하면 된다는 식의 대응을 해옴
 - 그중에서도 자동차용 마이콘은 대형거래처로부터의 가격인하 요구가 강하고 이익률이 낮으며, 하청체질로부터 탈피하지 못하는 허술한 재산관리도 적자 지속의 요인이 되어 왔음
- 르네사스와 마찬가지로 경영이 부진한 반도체기업에게 세금을 쏟아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, 최근 파산한 엘피타도 무려 300억엔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결국 미국 마이크론사에 매수되었음.
- 그러나 르네사스는 저부가가치 DRAM이 주력인 엘피타와는 다르며, 르네사스는 앞으로 적자인 시스템사업을 분리하여 후지쓰나 파나소닉 등과 사업통합을 추진할 방침임

□ 동상이몽의 관민조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

- 신생 르네사스의 지배구조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산업혁신기구와 자동차 등 민간 수요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호 이익이 상반되고 있음
 - 소액주주인 수요기업들로서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저가양질의 마이콘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를 바라고 있는 한편, 사업모델의 개혁 등 변화를 바라고 있지는 않음
 - 그러나 최대주주인 산업혁신기구는 앞으로 5~7년 후 주식을 매각하고 세금을 이용한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반드시 르네사스를 흑자구조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콘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 함
- 중장기적으로는, 수요기업들이 르네사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되는 한편, 르네사스도 국내 수요기업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글로벌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지적

② 산업통상전략

□ 일본의 TPP교섭에 따른 FTA추진 효과

- 내년부터 일본은 한국, 중국, ASEAN, EU 등과 다국간 FTA교섭에 착수
 - 금년에는 몽골(6월), 캐나다(11월), 콜롬비아(12월)와 FTA교섭, 그리고 2007년부터 교섭해 온 호주와의 FTA교섭을 포함하면 총 7개의 FTA를 추진
- 다수의 FTA교섭이 동시에 진행되게 된 것은 일본이 2011년 11월 TPP교섭 참가를 위해 사전협의를 선언했던 효과가 컸 던 것으로 평가
 - 미국 주도의 TPP에 일본이 가입하게 되면, 다른 국가들이 일본과 경제연대를 맺지 않을 경우 대일 무역에서 자국기업들이 미국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임
 - 바로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유럽과 중국 등 각국이 일본과의 경제연대에 참가하려는 것으로 일본 측은 보고 있음
- 문제는 일본이 TPP교섭에 참가표명도 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민, 민주 양당 모두 TPP참가에는 애매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
 - 후보자들은 농업단체를 배려하여 TPP반대를 강조하고 있으며, 선거 이후에도 의원들이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, 참가표명을 위한 조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음
- 경제연대는 하나의 FTA교섭이 이루어지면, 다른 FTA교섭도 진전되는 효과가 있음
 - 예를 들면 일본·호주 간 FTA교섭은 농산물의 관세철폐에서 장애물이 남아 있으나, 일본의 TPP교섭참가가 확실해지면, 호주는 일본과의 FTA교섭에서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음
 - 일본은 미국, EU쌍방과 자동차 시장개방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한쪽과 교섭을 결정하면 또 다른 쪽에도 같은 조건을 제시해야하는 견제효과도 예상됨
- 나아가, 일본이 TPP교섭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, 여타 국가들이 미국을 의식하여 일본과 경제연대를 맺는 동기가 줄어들다는 점도 TPP를 추진하는 이유임
 - TPP의 사전협에서 일본은 많은 나라들과 FTA교섭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, TPP교섭 참가가 늦어지면 여타국가와의 교섭도 보류되어 불리한 무역조건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

□ 산학연 태양전지 연구조직 발족, 제조비용의 절감을 목표

-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샤프, 파나소닉, 후쿠시마대학 등 19개 기관이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발족
 -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에 건설예정인 후쿠시마재생가능에너지 연구개발거점에 2014년 봄까지 첨단시제품라인을 도입
- 5년 이내에 시제품을 완성, 일본 국내에서의 제조비용을 절반정도로 낮춘다는 목표
- 발족되는 「차세대액정실리콘PV컨소시엄」은 샤프 및 파나소닉 외에 아사히초자, 대일본스크린 등 부재·장치메이커들도 참여
-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후쿠시마거점에 약 20억을 투입, 일관생산라인에 준하는 연산 10만매의 차세대태양전지의 첨단시제품 제작라인을 설치
 - 단결정실리콘의 절단방법에서 다수의 태양전지를 이어 1매의 패널로 모듈화하기까지의 기술을 신규개발
 - 5년 이내에 두께가 현재의 약 절반수준인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고효율 단결정실리콘태양전지 등을 시험제작
- 컨소시엄으로 개발한 기술은 기업들에게 이전, 기업경쟁력을 높이게 됨
 -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 열세에 있는 일본기업들에게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*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이데미쓰코우산	2012.12.11	바이오에탄올연료	캄보디아	개발협력/협력각서 체결
IHI	2012.12.11	비료원료, 수소가스	인도네시아	직접투자/현지법인 설립, 자본금 2억엔
미쓰비시중공업	2012.12.11	자동차용 과급기	미국	직접투자/생산거점 설립, 투자규모 약 10억엔
프라스	2012.12.11	회전의자	스위스/지로플렉스	기술제휴/라이선스생산
이온	2012.12.11	유통	캄보디아	직접투자/대형쇼핑센터(이온 모르프놈펜) 착공
트랜스코스모스	2012.12.11	BPO(간접업무수탁)	중국	직접투자/중국기업 매수
NTT도코모	2012.12.11	시스템개발	한국/알서포트	자본제휴/10억 9,000만엔 출자, 주식 19% 취득
코니카미놀타	2012.12.12	IT서비스	독일/라버앤마커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액 약 30억엔
KDDI	2012.12.12	렌털오피스	미얀마	직접투자/현지법인 설립
미쓰비시전기	2012.12.12	철도부품	인도	직접투자/공장신설, 투자규모 약 20억엔
미쓰비시동경UFJ은행	2012.12.13	금융	베트남/산업무역상업은행	자본제휴/약 600억엔 출자, 정부보유주식 20% 취득
동경엘렉트론	2012.12.13	액정패널제조장치	중국	직접투자/생산이관
닛산·르노	2012.12.13	자동차	러시아/아후토와즈	직접투자/주식의 74.5%취득, 투자규모 615억엔
NTT데이터	2012.12.13	IT	호주/이노지엔스	직접투자/기업매수
마루베니	2012.12.13	화력발전소건설	방글라데쉬/전원개발공사	한국 현대건설과 공동수주, 수주가액 약 300억엔
미쓰비시중공업	2012.12.13	발전기	미국/UTC	직접투자/사업매수
미즈호코퍼레이션은행	2012.12.13	금융	라오스/국영은행BCEL	업무제휴/일본기업의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등
히타치제작소	2012.12.14	인프라사업	인도	직접투자/공장신설 및 M&A, 투자규모 약 700억엔
카네마츠	2012.12.14	대두집하사업	미국/혼다트레이딩자회사	직접투자/사업매수, 매수가액 수십억엔

*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- (1) 『중소기업의 해외전개와 생산거점을 갖지않는 해외전개전략 : 기술공여, 생산위탁을 활용한 해외진출가능성』 일본정책금융공고종합연구소, 12월8일

*출처:http://www.jfc.go.jp/n/findings/pdf/ronbun1211_02.pdf

- (2) 『통상정책을 둘러싼 움직임』 산업구조심의회통상정책부회, 12월14일

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ummary/0003410/pdf/016_01_02.pdf

- (3) 『신중국시장 개척』 산업구조심의회통상정책부회, 12월14일

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ummary/0003410/016_haifu.html

- (4) 『차이나 리스크의 재인식 : 일본기업의 대중투자전략에 대한 제언』, 후지츠종합연구소, 12월14일

*출처:<http://jp.fujitsu.com/group/fri/downloads/report/research/2012/no398.pdf>